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 대학 ... 미래 에너지 개발 선도



'켄텍 1기생'인 강태현(왼쪽부터), 김수하, 김민주씨는 "한국에너지공대 수업방식이 지난 최대 장점인 소통과 탐구 정신"이라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미래 에너지 개발에 학교 구성원 모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1학년 2명 참여한 연구팀 논문 세계최대 학회 伊 '가스텍' 통과

정시 경쟁률 95.3대 1 전국 1위
2023 모의면접 전국 640명 신청

지난달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가 첫 신입생을 모집한 지 한 학기 만에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날로 기억된다. 학부 1학년 신입생 2명이 참여한 연구팀의 논문이 세계 최대 가스 부문 학회인 이탈리아 가스텍(Gastech)을 통과한 것이다. 수소 액화 전문가인 황지현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한국조선해양(KSOE)과 산학 협력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부하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기술에 대한 개념설계안을 만들어냈다. 황 교수는 "이번 가스텍 논문 통과와 켄텍 1기 대학원생들과 학부생들의 잠재력을 보여준 값진 결과물"이라며 "앞으로 국가 대형 수소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미래 수소 사회 구현을 위한 기술 혁신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에너지공대 학생들의 저력은 입시 경쟁률에서 확인됐다. 2022학년도 수시 모집 경쟁률은 다른 과학기술원의 2배 수준에 달하는 24대 1을 기록했으며, 정시 경쟁률은 95.3대 1로 '전국 1위'였다. 에너지공대는 독창적인 강의 방식으로 학생들의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대학 교육 혁신에 선봉에 선 김경 교육혁신센터장(에너지공학부 학부장)의 교육공학 전문성은 해외에서 먼저 인정받았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교육공학 학술단체 미국 교육공학회에서 '최우수 젊은 연구자상' '최우수 개발상' '최우수 논문상' 등을 잇달아 수상했으며, 오는 10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시상식을 앞두고 있다. 김경 센터장의 혁신 교육은 켄텍이 강의실 대신 마련한 '액티브 러닝 클래스룸'(ALC)에 적

용된다. 인공지능(AI) 분석 기술을 활용해 ALC 강의실 안에서 축적되는 학습자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들 자료를 기반으로 개인별로 맞춤형 학습 개선안을 제공할 수 있다. 'ALC 교육'은 광주와 나주 일부 중·고등학교에도 도입되며 시스템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탐구 중심 교육과 최첨단 교육 시스템을 접목한 에너지공대의 고유 교육모델인 'Eible'은 지난 5월 상표권 등록을 마치고도 했다. 에너지공대 교육의 또 다른 주축은 기숙형 대학을 일컫는 'RC 교육'이 담당한다.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하버드, 예일 등 해외 명문 대학이 선택한 교육 제도이다. 김은정 RC 교육 센터장(레지던셜 마스터 교수)은 "RC 교육이 켄텍에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었던 것은 한 명의 학생을 3명의 교수가 지도하는 '트리플 어드바이징'에 대해 모든 구성원이 열의를 가지고 임했기 때문"이라며 "RC는 학생들이 학문은 물론 글로벌 시민의식을 지닐 수 있도록 광범위한 교육을 이우할 수 있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한편 에너지공대는 오는 13일부터 시작하는 2023학년도 수시모집을 앞두고 지난 7-8월 온라인 모의 면접과 입시 설명회를 열었다. 온라인 면접은 접수 사흘 동안 전년의 3배에 달하는 640명이 신청해 열기를 더했다. 대학 측은 30명을 무작위 추첨해 에너지공대의 '창의성 면접'을 필두로 한 면접을 실천처럼 치렀다. 장광재 입학센터장은 "지난해 처음 실시된 창의성 면접을 통해 켄텍의 인재상에 맞는 융합교육과 혁신교육을 미리 경험할 수 있어 면접에 참여한 학생들 다수가 켄텍을 선택하는 계기가 됐다"며 "모의 면접에 참가하지 못한 수험생을 위해 창의성 면접 안내 영상을 공식 유튜브 채널에 실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학업과 생활을 병행하는 RC 교육을 익히기 위해 지난달 25일 대학 테슬라 커뮤니티센터(생활관)에서 열린 오리엔테이션 중 게임 방식으로 진행된 '에너지 버스' 프로그램. <에너지공대 제공>



"강의실에서 스치며 주고받은 말, 동아리에서 장난삼아 만들어본 게임이 의미 있는 연구 과제가 되고 있어 신기하고 흥미로워요."

'켄텍(KENTECH-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1기생'인 강태현·김수하·김민주(20)씨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학교생활 삼매경에 빠져있다.

지난 6일 나주시 빛가람동 에너지공대 테슬라 커뮤니티센터(생활관)에서 만난 이들은 신생 대학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말끔히 털어 없애기 충분할 만큼 대학 생활에 완전하게 적응해 있었다.

이들은 지난 1학기 핵심 연구 분야가 저마다 달랐지만, 이번 2학기에는 모두 에너지 환경·기후 공부를 할 계획을 세웠다.

최근 들어 부쩍 잦아진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기후부문에 관한 연구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에너지공대는 1학년 학생들이 에너지 5대 핵심 연구 분야를 탐구할 수 있도록 비저너리 코스(VC) 수업을 마련했다.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 중심 수업이 아니라 현장의 문제를 교실로 가져와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기반' 탐구학습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한 학기 동안 각자 서너 개 넘는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해왔으며, 2학기에도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눈코 뜰 사이 없지만, 이들은 시간을 쪼개 학회, 자치회,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

1인 3~4개 연구 프로젝트 수행
강의 아닌 토론 중심 수업 '소통' 공모전 통해 상품화 특허까지
학술회·자치회·동아리 활동 열심
하버드 등 미국 대학에서 수업도

고등학교 시절 물리량 수학을 좋아했던 김수하씨는 창업 동아리에 들며 적성을 한껏 살리고 있다.

김씨가 속한 동아리 '에너지틱'은 지역 치안을 유지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만들기 열중하고 있다.

김씨는 세계적 혁신대학인 미네르바 대학의 토론 중심 교육과정 '미네르바 프로젝트'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미네르바는 교수와 학생이 인문학적 통찰력, 소통 역량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론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업에 관련한 학생 개별 자료를 모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점을 발굴할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지난 5월 치른 '제1회 학생 총선거'에서 부총학생회장으로 뽑힌 그는 더 나은 학교를 만들어 내년 들어올 후배들을 반기고 싶은 바람이 있다.

"우리 대학은 현재 1학년 밖에 없지만, 교수님과 학교 구성원들이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고민하는 선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내년 만날 후배들이 학교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유익하고 재미난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역상권에도 보탬을 주기 위해 학생들이 자주 가는 음식점과 카페, 병원 등과 제휴를 맺을 계획도 세웠습니다."

김민주씨는 창업 동아리 '에너지틱'의 경쟁자 격인 '스위치 온'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학교 동아리들은 비저너리 코스(VC) 수업 연장선상에서 선택한 연구 과제를 전공 교수, 멘토 교수 등과 함께 수행하고 있다.

각종 공모전에서 실력을 겨루는 한편 논문 작성과 상품화, 특허 신청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외 학교에서 축구, 농구 등 운동 부문과 K-팝 동아리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김씨는 "작아서 버려지는 에너지를 수확한다는 '에너지 하베스팅' 개념을 활용해 '춤추는 신발' 개념을 만들고 있다"며 "처음에는 대학 연구가 막연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학부 감사위원장을 맡은 그는 관련 규칙과 세칙을 직접 만들며 학생 자치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지난 여름방학 동안 1학년생들은 대부분 기숙사에 머무르며 연구 과제를 수행하거나 기관·공기업 인턴십, 해외 연수 등에 참여했다.

강태현씨도 대학 첫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냈다. 그는 계절학기 수업을 듣고 청춘의 특권이라 불리는 '내일로 기차여행'을 학우들과 다녀오기도 했다.

하버드와 UC버클리 등 미국 유수 대학으로 가서 두 달여 공부하기 위한 준비도 차곡차곡했다. 강씨는 에너지 연구를 선도하는 연구자의 꿈을 지니고 있다.

그는 "1학기에는 에너지 신소재를 공부했는데 2학기에는 에너지 환경·기후를 중점적으로 공부하기로 했다"며 "신재생에너지 연구에 몰두해 전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나주=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1 반경 1km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 7000여 세대 상권유입 가능
- 2 아시아문화전당 인접, 예술의 거리 및 음식의 거리 방문 고객 확보
- 3 사옥 5층 문화센터 상시운영 (골프클럽, 요가, 갤러리)가맹고객 확보
- 4 지하철 2호선 개통시 접근성 양호, 유동인구 폭발 증가



대인시장, 한화생명, KT, KT(청지다방) 광주빌딩, 대중병원 (구)김병원, 추선회관, 광주중앙초등학교, 세종약기, 주차장 입구, 예술의거리, 음식점의 거리, 동양저축은행, 금호시민문화관, 원각사, SK브로드밴드, 지하철 2호선 4번 출구, 금남로4거리, 금남로공원

MG골프클럽

구분	이용기간	정상 이용료	금남새마을금고 이용자 할인 특가 (원)		
			30점 이상 (10%)	40점 이상 (15%)	50점 이상 (20%)
정기회원	1개월	200,000	180,000	170,000	160,000
	3개월	570,000	513,000	484,500	456,000
	6개월	1,080,000	972,000	918,000	864,000
	12개월	2,040,000	1,836,000	1,734,000	1,632,000

* 이용자 할인 특가 문의 (영업지원팀)
* 락카비 - 월 10,000원 (6개월 이상 등록자 무료)
* MG체크카드 이용 시 이용금액의 5% 추가 할인 (최고 2만원 할인)
* 유명 골프 프로 레슨 중

사옥 임대 문의 (영업지원팀)

5층 MG문화센터 회원 대모집

요가, 노래교실, 라인댄스 상시 운영 중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07-7(대인동)

☎ 062-223-8007